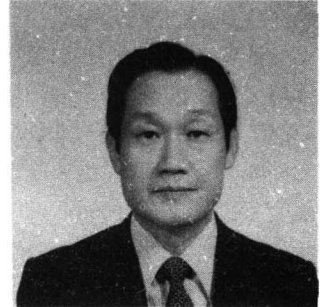


智慧와 忍耐 로 医療難局 을 克服



高麗大學校 医療院 院長 申 洪 秀

새해를 맞이 한다는것은 언제나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의 轉機를 뜻하며 지난해에 挫折해 있던 사람에게는 새로운 勇氣와 希望을 주고 순탄하였던 자에게는 더욱 活氣를 불어줄 수 있는 좋은 機會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83년도도 病院界로서는 그다지 반가웠던 일만이 있었던것은 아닌것 같으며 그러한 意味에서도 84년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希望과 함께 여러가지로 期待 해볼수 있는 甲子年이 되기를 懇切히 祈願한다.

教室과 診療室만을 왔다갔다 하고 있을때는 病院運營의 어려움이란 별로 피부로 느끼지 못 하였으나 막상 院長 이라는 직책을 맡고 보니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痛感하게 되었다. 날로 어려워져 가는 病院經營을 어떻게 合理的으로 그리고 財政적으로 유리하게 이끌어 가는가 하는것은 특히 醫療保險制度가 實施된 이후로 모든 病院이 深刻하게 直面하게 되었고 이를 打開해 보려고 努力하던차에 몇몇 이름있는 綜合病院의 倒産까지 招來하게 되어 年末의 病院界에 峻 衝擊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한 不幸의 根本原因과 責任이 어디에 있는 가는 차차 明白해 지겠지만 現行의 醫療保險制度가 間接의이나마 어떠한 影響을 주었을것 이라는 推測도 과히 조금한 判斷은 아닐것 같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醫療保險制度가 改善되어야 하겠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료인으로서 異議를 提起할 사람은 없을 것이며 그것은 곧 醫療人의 懇切한 所望 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 醫療保險制度가 導入된지 今年 이 만 7년째가 된다. 이制度는 國家가 指向하는 社會保障制度의 根幹을 이루는 것으로 그 目的과 方向에 대해서는 아무도 問題를 提起할 사람은 없다. 다만 그 實行에 있어서 保險 酬價의 非現實的인 策定과 制度의 運營에 있어서의 錯誤등에 의한 몇가지 副作用은 가능한 조속히 是正 되어야 하겠다. 經濟自立 發展을 最高目標로 삼은 政府로서 物價上昇을 抑制하려는 努力에서 많은 苦衷이 있을것 이라는 것도 理解는 되지만 保險財政의 確保와 아울러 酬價의 現實化는 沈滯되어가는 醫療界 에게는

切實한 問題이다. 저렴한 酬価의 한 副作用으로서 一部의 不正 또는 過多請求는 勿論 우리들 스스로가 깊이 反省하고 是正하여야 할 일이지만 날로 深刻해지는 病院經營의 어려움과 이에 따르는 醫療界의 萎縮이 結果적으로 國民保健에 미치는 影響이 어떻게 나타날것인가를 憂慮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醫療保險充足以來로 綜合病院 또는 大學病院에만 集中하는 患者의 対処問題가 醫師의 都市集中現象에 대한 解決策과 아울러 醫療資源의 效率의이라는 면에서 醫療傳達 體系의 確立을 서두르게 하고 있음은 不得已한 일이라고 생각 하지만 이것도 保險酬価의 體系別改善과 上向調整 없이는 또다른 混亂이 招來되지 않을까 念慮스럽다.

이와함께 우리 醫療人自体도 스스로 反省하고 改善하여야 할점도 많다. 無理한 病院擴張, 無理한 高價裝備導入에서 오는 또하나의 無理한 經營으로 허덕이는 일도 再考하여야 하지만 가장 緊要한 것은 醫療人으로서 倫理姿勢의 確立일 것이다. 지난해도 善意건 惡意건 간에 우리 醫療人 또는 病院界가 마스크를 통하여 자주 話題를 일으켜 왔고 그때마다 주로 좋은소리 보다는 듣기 거북한 소리만 들려온것은 사실이다. 물론 모든것이 우리들에게만 責任이 있는것은 아니겠고 患者의 沒理解나 故意的인 意圖도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그것을 탓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病者는 역시 弱한者 이다. 心的으로 肉體的으로 異常을 느끼고 아픔을 가진者에게 우리는 좀더 그 切實함을 같이 느끼고 理解하려고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家族과 같이 돌보아 주고 자주 對話를 하는데에서 相互間에 따뜻한 人情味가 생긴다면 지난해와 같이 떠들썩한 문제들을 어느 정도는 막을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새해에는 当局에서도 醫療秩序 確立을 目標로 삼고 있으나 그에 앞서 우리들이 自進해서 果敢히 是正하여야 할 問題도 많다. 醫療界에 대한 社會의 不信風潮를 解消시키는 일도 重要하나 무엇보다도 深刻한 것은 醫療傳達體系의

確立에 때를 맞추어 專門醫制度 및 運營에도 어떠한 轉換點을 찾아야 하지않나 하는점이다. 우리나라에 專門醫制度가 實施된지 이미 20余年이 經過하였고 그간 이 制度가 우리의 醫學界를 急速히 向上시킨 業績은 누구도 否定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나 反面에 醫大卒業生의 殆半이 專門醫가 되고 그것이 醫師의 都市集中을 一層 加重시키고 있으며 또한 그러면서도 그 많은 專門醫들중 과연 몇사람이 그 어렵고 긴 修練課程을 修了한 만큼의 實力을 發揮할수 있는 與件이 되어있는 지는 의문일뿐 아니라 教育의 浪費일수도 있다. 이것은 반드시 修練課程의 短縮을 뜻 하는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修練을 強化시켜 꼭 必要한 만큼의 우수한 專門醫를 養成하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單科開業醫로서 알맞은 修練課程이 따로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現在 論議되고 있는 家庭醫制度和 어떤 關係가 될지는 檢討하여야 하겠지만 臨床醫로서 지나친 博士學位 및 專門醫取得에 대한 執念으로 아까운 時間과 努力을 濫用하지 말고 좀더 實質的인 面을 考慮하여야 할 時期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甲子年 새해는 쥐의 해이다. 쥐라는 動物은 영리하다 못해 너무지나쳐 탈이기도 하지만, 새해를 맞는 시점에서 그 영리함처럼 우리 病院人은 보다 슬기로운 智慧를 갖고 어려운 醫療環境속에 病院界의 發展을 위해 盡力하기를 祈願한다.

